

# 막 내린 TV토론... 네거티브 난무에 후보 정책 판단엔 미흡



민주 합창단 어르신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윗줄 가운데)씨와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가운데줄 왼쪽)씨,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김혜경(가운데줄 오른쪽)씨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부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로당 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파이팅 합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점을 하루 앞두고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각오를 새로 다지며 박수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후보 5인 TV토론 성적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뜨겁게 달군 6차례의 TV토론이 2일 막을 내렸다. 대선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는 이날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삼양동 MBC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이 사회 분야와 관련,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 대선 TV토론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횡수부터 3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고 무엇보다 ‘대본 없는 스탠딩’ 토론을 도입해 비교적 역동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책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는 등 과거 TV토론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또 스탠딩 토론이 양자대결 또는 삼자대결에 적합한 방식인 탓에 5명의 후보가 토

문, 1대 4 공격에 선방  
홍, 보수층 결집 성공  
안, 지지율 하락 쓴맛  
劉, 송곳 질문하며 선전  
沈, 지지 상승 최다 수혜

론자로 나선 이번 TV토론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진 채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을 받은 후보는 지지율 면에서 뒤쳐진 정의당 심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였다. 지지율과 당세에서 다른 후보들에 뒤지는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가감 없고 논리적인 발언으로 선두 후보를 몰아붙였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거리낌없이 쏟아냈다.

특히 심 후보는 서민과 노동자 등 약자, 진보성향 유권자 등의 마음을 잡는 시원한

소신발언으로 TV토론 전 5% 안팎의 지지율을 8~10%까지 끌어올렸다.

유 후보도 송곳 같은 논리와 문제 제기를 앞세워 문재인 후보와 일자리 공약 관련 재원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 공격하는 등 선전했음에도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당 홍 후보는 철저히 보수층을 공략했다. ‘좌우 모두 세타기에 들려야 한다’ ‘강성귀족노조가 경제위기 주범이다’ 등 보수 유권자를 파고들 만한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면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못매를 맞았지만 보수결집에는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민주당 문 후보는 선두주자의 위치 때문에 다른 후보들로부터 질문과 공격이 집중되며 ‘1대4’의 대결구도 속에 협공에 처했지만 1강 독주 체제는 유지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이보세요”, “정책본부장에 물어보시라” 등의 발언으로 지지율 1위 후보의 고압적 자세 논란에 휘말리

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 후보는 TV토론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후보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TV토론 할 때마다 지지율이 2~3% P씩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3차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라고 문 후보에게 따진 것이 대표적인 실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TV토론은 판세 자체를 흔들려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나, 이번 TV토론은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날 30일~1일 전국 성인 남녀 3077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8%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4월28일) TV토론을 보고 지지하던 후보를 바꿨느냐”는 질문에 대해 87.4%는 ‘바꾸지 않았다’고 했지만 7.2%는 ‘바꿨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2030 교감 행보’

수도권서 ‘희망토크’...창업·주거문제 등 문답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030세대 청년층과의 교감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청춘콘서트’로 상징됐던 ‘청년과의 소통’ 이미지를 다시금 강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기울어 있는 젊은층 표심을 되돌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주말인 지난날 30일 수도권 주요 도시를 훑은 데 이어 전날에는 인천에서도 유세를 벌였다. 유세 장소는 부천역, 안양 법계 로데오거리, 인천 남구 신세계백화점 등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어 안 후보는 2일 오전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청년 25명과 ‘2030 희망토크’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청년들이 사전에 준비된 패널에 각자의 고민을 적은 뒤 안 후보

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털어놓은 고민은 창업의 어려움, 낙태를 포함한 여성문제, 청년주거문제, 성 소수자 문제 등 각각각색이 었다.

안 후보는 “서울에서 거주하기가 너무 비싸다”는 한 청년의 고민에 “이제는 장학금과 주거비와 생활비를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룸촌 떠도는 청년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매년 청년희망대주매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다시 소개하기도 했다.

40여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행사 말미에 20대 청년 서너명이 난입,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文 “한국당과도 협치”... 집권후 카드 내밀었다

국민의당 “통합 비난해놓고 뻔뻔”... 민주 “연정하자는건 아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집권 이후, 자유한국당과의 협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일 CBS 라디오에 출연, “선거가 끝나면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다. 함께 협치해야 할 대상”이라며 당선된다면 야당의 당사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는 그동안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각을 세운 것은 물론 통합정부론을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적폐 연대라고 비난했다는 점에서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자리를 나누는 대연정이 안된다고 한 것이지, 협치에서는 한국당도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며 “협치관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호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기자회견단 회에서 “문 후보는 한국당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협조를 얻겠다는 취지”라며 “세력 연합이나 연대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문 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문 후보가 현실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의 현실을 감안,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강조점이 미묘하게 달

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의 이번 발언은 집권 이후 협력 관계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도적 지지를 통한 개혁동력 확보를 강조하는 동시에, 협치의 가능성을 미리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측의 적폐 연대 프레임에 고전했던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중앙선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안철수의 국민통합을 비난하고 뒤로는 한국당과 손을 잡겠다는 문 후보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010-7384-7800
010-2699-5300

###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전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전남 보성 반값아파트 (분양)

보성 역 1분!! 보성군청 5분!!

총 187세대

25평, 29평, 34평

보증금 3,000만 월 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 영광 전원주택 매매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매가 1억 (용 2천)

### 경기도 여주시 반값아파트 (분양)

버스 정류장 5분! 가남초등학교 7분!!

2017년 12월 성남장호원간 고속도로 예정

24평 - 평가가 640만!!

▶ 실 투자금액 300만!! ◀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청단지구 생활공원 1분, 총 28개 (월수익 3,000만 이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평가 45억 → 최저가 25억
- 부안군 진서면 (속박시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3억9천8백
- 동구 금남로3가 (4층상가건물) 토 118평, 건 304평 금남로 471억 1분 총장로 중심 상업권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 북구 용봉동 (12층 중 6층 상가) 토 62평, 건 99평 왕봉동 cgv, 국모빌 타운 주차완비 / 월세 100만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3천

### 기타 상가(소액) 물건 추천

1.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평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2. 광산구 쌍암동 (10층 중 6층 오피스텔) 토 1평, 건 8평 (실평수) 보 300만 월 30만 ▶ 감평가 6천 → 최저가 2천7백
3. 삼우지구 오피스텔 (13층 중 11층) 토 2평, 건 1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중심가 보 500만 월 40만 ▶ 감평가 8천6백 → 최저가 6천만
4. 남구 주월동 (토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23평) 남구청 1분, 4m 도로 접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5. 서구관천동 (주택) 토 51평, 건 53평 광천동 재개발 지역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경매 무료교육

□ 매주 월요일 10시

기초교육 / 입찰 방법 교육

▶ 경매 실전 전문반 ◀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입찰부터 매매임대,개찰까지 원스톱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062-511-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2699-5300